

마션(Then Martian)

앤디 위어 저 / 박아람 역, 알에이치코리아(RHK)

저자 소개 : 앤디 위어(Andy Weir, 1972~)



1972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출생했다.

입자물리학자인 아버지와 전기기술자인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으며,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**컴퓨터공학**을 공부하다가 15살 때 산디아 국립연구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기 시작했다.

이후 AOL 등의 회사 등에서 특히 **소프트웨어 개발자**로 일했으며 워크래프

트2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다.

그러다가 20대에 들어서면서 낮에는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밤에는 본격적으로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다. **2009년 첫 장편인 <마션>**을 개인 블로그에 연재하다가 독자들의 요청으로 전자책으로 출간, 이후 아마존에 출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최소 0.99달러의 수수료를 필요로 한다고 하여 **책 값을 0.99달러로 책정**했다. 그리고 소위 대박이 나면서 **아마존 베스트셀러**에 오르게 되었다. 이후 2014년에는 미국에서, 그리고 201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종이책으로 출판도 하게 되었다.

내용

NASA 아레스3 탐사대는 화성을 탐사하던 중 모래폭풍을 만나고 팀원 **마크 와트니**가 사망했다고 판단, 그를 남기고 떠난다. 극적으로 생존한 마크 와트니는 남은 식량과 기발한 재치로 화성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려 노력한다.

마침내,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지구에 알리게 된 마크 와트니. NASA는 총력을 기울여 마크 와트니를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고, 아레스3 탐사대 또한 그를 구출하기 위해 그들만의 방법을 찾게 되는데……

전 세계가 바라는 마크 와트니의 지구 귀환!

그는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?

이 책은 어려운 개념과 이에 대한 설명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. 분자 역학, 대기 밀도,

공기 저항이니 하는 말들이 그렇다. 이러한 부분에서는 책을 덮고 싶은 유혹도 잠시 든다. 그러나 다 읽고 나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해학과 유머에 뿌듯함을 어느덧 느끼게 된다.

하나를 위해 전체가 마음을 모아 움직이고, 내가 애타게 바라면 전 세계가 도와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.

〈마션〉은 특히 **영화**로 더 유명한데, 2015년 **맷 데이먼 주연**으로 화성에서의 표류기를 담고 있다. 달리 말하자면, 요즘 유행하는 삼시세끼 화성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하다.